

“농촌에 청년 일자리 연계해야”

전북연구원,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지원방안 제안

상대적으로 사회관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농촌지역 고령의 원주민과 다문화 배경 결혼 이민자 등을 위한 생활돌봄에 청년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돌봄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주민은 생활상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갖고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완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 일자리를 통해 농촌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농촌사회’가 적극 개입해 농촌주민의 ‘생활돌봄’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생활돌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등의 청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첫째, 생활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청년의 직업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공동체 조직이 다양한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귀농·귀촌)청년을 직접 고용하고 관련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경제권인 읍·면의 행정조직(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생활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담당인력으로 (귀농·귀촌)청년을 고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주민행복’은 지역 사회 전체가 담당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농촌내부의 인적자원을 활용주체로 하는 역할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분야 품질관리 기준평가 ‘적합’ 판정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9년도 법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생산과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로부터 인가받아 시험 분석하는 법정 시험검사기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들 법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등 품질관리 기준평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해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격년제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도 지난 2017년도

평가와 같이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시험 분석능력을 보유한 기관임을 재차 입증했다.

유택수 원장은 “이번 평가는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서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결과이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검사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동물위생시험소, 능력검정 완료 송아지 축산농가 분양

진안군 성수면 소재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은 15일 계획교배를 통해 생산된 우수 혈통의 한우 수송아지 19마리를 축산농가에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한우 수송아지는 전북도 한우 육종센터에서 당대검정

을 마친 13~14개월령 거세우로서 혈통관리가 우수하며 농가에서 비육검정 종료 시까지 사용하고 도축 후 시험장에서 도체 성적을 조사한 것으로, 가족개량 효과와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시험장에서는 품종개량을 위한

한우 송아지를 축산농가에 분양하고 있으며, 이미 7월에 13마리 분양을 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관계지는 “품종개량을 거쳐 분양하는 송아지가 실질적인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우수혈통의 번식암소집단을 조성하고 한우 능력개량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부,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 ‘타운워칭’ 추진

행정안전부는 주민 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인 ‘안전 타운워칭(Town Watching)’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 타운워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 주

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상반기 안전 타운워칭 활동 실적 우수한 지자체와 함께 하며, 지역 특

색에 맞는 주제별·시기별 활동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앞서 10개 시·도와 7개 시·군·구는 상반기중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총 319차례 안전 타운워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에 캠페인 한글 명칭 공모도 한다.

/뉴시스



농민수당 도입 요구하는 농민 공익수당 주민 발의 전북운동본부

농민 공익수당 주민 발의 전북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민청구조례인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조금 지급 확대와 공익신고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처 확대 방안 등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협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익위에 제시했다.

구조금이란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소송을 당한 신고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회는 또 현재 권익위로만 한정된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 됐다. 제안된 안건에 대한 세부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사회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건축문화, 감성과 미래를 담다’

전북도, 25일부터 도민과 함께 열거는 건축문화제 개최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어린이 집그리기대회 등 다채

전북도는 건축문화 창달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도청 일원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와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올해로 이십 번째를 맞이했으며, 오는 25일 개막식(도청 로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가 진행된다.

본 행사에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접수한 결과 일반 사용승인분야, 학생 계획 분야, 건축사진 분야 등 7개 부문에 총 10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특히, 타 시도에서도 일반사용승인

분야, 학생 계획 분야, 사진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13점이 출품되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품된 작품은 오는 10월 17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로 35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도민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건축문화, 감성과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건축사의 사 용승인 작품과 학생들의 수상작 전시, 어린이집그리기, 백일장대회, 역대 건축문화제 재조명,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내내 이어진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문화상 당선작품을 비롯해 한·중·일 건축사들의 우수작품과 한옥건축 모형 등을 도청 로비 및 기획전시실에 10월 3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건축설계·허가 및 시공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건축·건설 상담과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분야 진로 상담 코너 운영과 건축 우수설계 및 명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학술강연이 개최되어 전북 건축문화 발전과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2000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제20회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해가는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뜻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